

자유총연맹 임원 초청 오찬 중 말씀

교류를 통해 평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자유총연맹은 옛날에는 관변 단체였고 저는 야당이어서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습니니다. 김대통령이 당선되면 연맹을 홀으리 버릴 줄 알았는데 잘 협력하면서 갔습니니다. 나라 잘 되자고 목숨, 지위, 역량을 모두 투자해서 몸 바쳐 일해 온 사람들입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받아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기억 때문에 조심조심하는데 다행히 권 총재와 제가 당을 같이 했고 제 아내가 안동 권씨라서 관계가 좋습니다. 회장과 좋으면 여러분과도 좋은 것입니다. 연맹이 생길 때는 냉전 체제였습니다. 남북이 목숨 건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이 거의 해소됐습니니다. 남북 위협도 상당히 줄거나 사라졌습니니다. 물론 항상 경계하고 안보를 지켜야 하지만 교류를 통해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까지 가야 합니다. 대결시대엔 대결이 사명이지만 대화의 시대엔 공존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될까요? 노무현과 연맹이 잘 지내는 정도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는 있지만 궁극의 목표인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결끄러운 관계를 털어버립시다. 연맹도 새롭게 행동하는 시민단체로 가슴 펴고 임해주십시오. 대통령 얼굴보고 과거에 좋지 않았다고 해서 서먹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